

“가족이라더니” 광주서 반려동물 하루 11마리 버려진다

(2019년 기준)

‘반려동물 1000만’ 양육자 인식 부족 아쉽다

3마리만 시설 등서 입양... 나머지는 죽거나 안락사
동물등록율 36% 그치고 유기때 벌금 300만원 불과
이웃간 다툼도 3년새 5.6배 증가...펫티켓 필요한 때

광주에서 기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하루 평균 11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버려진 동물 가운데 평균적으로 3마리만 입양될 뿐 나머지는 죽거나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양육자가 그에 걸맞은 의식이나 애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작용마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유기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유기시 현행 벌금 처분에 그치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광주지역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35만 7000여 명으로 광주시 인구가 145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유기기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 도심에 버려진 동물은 2015년 1703마리, 2016년 2610마리, 2017년 3669마리, 2018년 3269마리, 2019년 3830마리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물유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을 유기하더라도 처벌은 미비한 수준으로 동물보호법 상 벌금 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유기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동물등록제 등록율이 광주시의 경우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46%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유기동물물을 수용하는 동물보호소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의 유일한 동물보호소인 북구 본촌동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500여 마리로 적정 보호 두(頭) 수인 350마리를 초과 보호 중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시설의 공간 협소 등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유기동물들을 제대로 돌보기 힘들어 재입양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소 안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소를 거쳐간 유기동물 3700마리 가운데 1764마리(47%)가 자연사, 270마리



(8%)가 안락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60마리(30%)만이 입양됐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나쁜 상태로 입소하는 유기동물들이 많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탓에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 응급처리가 불가하면서 긴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단체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기우는 반려인과 동물을 기우지 않는 사람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광주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이웃간 다툼도 2016년 96건에서 2019년 535건으로 5.57배 증가했다.

이 때문에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펫티켓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임용관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대표는 “동물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다툼은 결국 모두 펫티켓의 문제다. 목줄착용, 동물등록제 참여 등 반려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또 현행 동물보호법을 세분화하고 펫티켓 미준수와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과학관 ‘만들기 꾸러미’ 증정

지난 25일 국립광주과학관 입구에서 시민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만들기 꾸러미’를 수령하고 있다. 광주과학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장기화에 따라 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꾸러미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하남중 3학년 김경서(가운데)·신한비양과 광주고 3학년 최정민 군이 코로나19 예방수칙 송을 녹음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코로나 싫어 싫어”

광주지역 중·고생 예방수칙 노래 제작

“코로나 싫어 싫어, 감염 싫어 싫어. 사람 많은 곳 Oh~No~마스크, 기침 예절. 증상이 나타날 땐 1339야~생활 속 거리 두기 꼭 실천해요! 마음만은 가까이 유지하면서-.”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송(Song)’을 만들어 화제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수칙 송은 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우유송’ 가사와 리듬을 살려 일선중 3학년 한울·최연희 학생이 개사하고, 광주고 3학년 최정민 군이 랩을 작사했다. 또 하남중 3학년 김경서·신한비 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최정민 군이 랩을 불러 노래를 완성했다.

가사는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정부지

침 준수, 자가진단, 청결 유지 등 학생들이 지켜야 할 코로나19 생활수칙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우유송’의 작곡가 조형섭씨와 작사자 김주희씨의 동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수칙 송을 등·하고, 급식 전, 쉬는 시간 등에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유송’의 저작권자인 이들은 “광주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송 제작 소식을 들었다”며 “좋은 일에 사용한다니 기쁘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한두석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지난 24일 서강중 학생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송’에 맞춰 영상도 제작했다”며 “교육청 유튜브에 게시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시, 민간 매각 위기 옛 적십자병원 매입

5·18 사적지 제 11호...역사문화교육 공간 보존

민간에 매각될 위기(광주일보 2019년 8월 28일자 6면)에 놓였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 11호인 ‘광주적십자병원’을 광주시가 매입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적십자병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측과 88억 4945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지

난달 26일 체결했다. 지난 6월 26일 광주시는 서남학원측에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광주시와 서남학원측 청산인 측은 교육부의 적십자병원 청산 허가기간이 올해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받기 전에

적십자 병원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동안 적십자병원은 지난 1월~5월 2차례 유찰돼 광주시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주시는 7월 안에 잔금 77억여원을 치른 뒤 광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적십자병원내에 보관중인 1980년 당시 자료와 비품은 광주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자료와 비품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적십자병원을 역사문화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9월부터 보존 및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사자간 직접계약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0만원을 절감했다”면서 “그동안 서남학원측과 협의중인 사항이 있어 계약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동신대·광주여대, 2021학년도 수시면접 비대면

광주대·동신대·광주여대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광주대는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된 수시 면접고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동신대(10월 28일)와 광주여대(10월 29일)도 수시 면접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광주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

집에서 총 1652명을 모집하며, 면접고사가 반영되는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전형이다. 동신대는 올해 수시에서 41개 학과, 1605명을 선발하는데 이중 36개 학과는 면접(학생부 교과 전형)을 거쳐

764명을 모집한다. 또 광주여대는 수시에서 총 965명을 모집하며,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에서 934명을 선발한다.

비대면 면접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웹과 앱에서 모두 접속 가능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 시험을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